

Agent Orange

배경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과 연합군이 남부 베트남의 정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미군은 전술적인 목적으로 열대 우림의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군사용(전술적) 제초제를 개발 및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 에이전트 오렌지였습니다. 미군은 에이전트 오렌지를 연구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은 전쟁 중에 오직 전술적인 목적만을 위한 군사 규격에 따라 생산되었습니다.

1950년에 제정된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의거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를 납품하였던 기업에는 다우 케미칼사, 몬산토사, 허큘리스사, 다이아몬드 삼록사, 유니로열사, 톰슨 케미칼사, 톰슨-헤이워드 케미칼사가 있었으며, 당시에 에이전트 오렌지는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전혀 시판된 바 없습니다.

다우의 입장

다우는 베트남에서 근무하였던 모든 분들과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에 국가가 전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여러 기업들로 하여금 에이전트 오렌지를 생산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이전트 오렌지의 생산 방법을 특정하였고 그 후 이 제품의 운송, 보관 및 사용을 통제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의 사용을 포함하여 전시 중 발생한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연합군 정부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들을 마련하였고 미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 에이전트 오렌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이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매우 심도 있는 증거 자료는 참전 군인들의 질병들이 에이전트 오렌지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합니다.